

불교뉴스

불교교양대도 정규대승격 가능

대원·동산등 설립기준 충족...8월말까지 신청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강원)은 물론 50여개 불교교양대학도 일반 정규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게끔 정규대승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교계에도 물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극단적으로 1명정원에 1개과인 대학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등 총 정원 설치과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의 행정적 물적지원과 교양대학측의 추진의지만 합된다면 불교교양대학의 정규대 승격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인문사회계열(불교학과)의 경우 3.6명을 학생 1인당 면적최소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교지는 정원 4백명이하인 경우 교사만 있으면 되고, 학생 25인당 교원 정원 설치과외의 제한을 두지

정규대 승격이 가능하다. 또 교육부는 수익용재산의 경우 부실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5%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9월 중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관련 발족당시 불교교양대학의 각종학교승격

추진의지를 밝힌 전국불교교양대 대표자협의회 김재일발사는 "단기 3개월, 6개월 단위의 불교교양은 차치해 두더라도 2년제 불교교양대학으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과 학제 학사운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산 불교교육대학 대원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10여개 불교교양대학의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재정규모(수익용재산)에 대한 요건만

구비한다면 불교계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정규대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교양대학이 정규대로 승격하기까지는 각 불교교양대학과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추진의지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학교법인의 이사영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교교양대학을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교육위원의 구성과 수업평가제 교수법개선 등 사후관리 의무화방안의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도필선 기자>



사리친견 행렬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과 나원리 5층석탑사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69과가 모셔진 조계사 법당앞에는 하루평균 1천여명이 넘는 불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부처님 사리친견법회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며 친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봉은사 신도회 발기

봉은사 신도회 발기인대회가 지난 20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열려 창립준비위원회에 최호정 거사탑회장을 추대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신도교육을 통해 구역법회와 거사탑 불교대학동회 청년회 등 여러 신중단체가 활발히 운영되어 왔다. 봉은사신도회 창립법회는 8월말 봉행할 예정이다.

불자교사 연수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제1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를 오는 8월7일부터 10일까지(3박4일) 경주 사릉사에서 개최한다. 강사에 이기영박사 정병조교수. (02)3411-6167

교사불교학당 개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4일부터 26일까지 교사불자를 대상으로 '교사불교학당'을 개설한다. 불자교사의 올바른 생활태도와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62)228-9098

불교TV 육법공양회

불교TV 산하 육법공양회(회장 하영택)가 지난 15일 마포 석불사에서 창립했다. <사진>

이날 창립법회에는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승가대 폐쇄

불국사는 승가대학생들의 폭력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긴급 대중회의를 열고 15일자로 승가대학을 폐쇄 조치했다.

고성어린이 서울구경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회장 설조·안동일)은 고성 죽왕초등학교 어린이 60여명을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구경을 실시한다.

34명에 경봉장학금

(사)경봉장학재단(이사장 원영)은 경봉대선사 14주기 행사를 맞아 지난 1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제12차 경봉장학금 2천2백여만원을 34명에게 전달했다.

은혜사 '일연학 연구원' 발족

8월20일 삼국유사 집필한 인각사 성역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주지 법타)는 8월20일 일연스님 재일을 맞아 (가칭)일연학 연구원을 발족한다.

일연학 연구원은 일연스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삼국유사)의 저술지 인각사를 성역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각사 주

지가 위원을 맡는다. 한편 은혜사는 인각사 주지를 중단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초빙한다. 인각사 주지자적은 승남 15년이상 비구계를 수지하고 일연스님의 업적, 삼국유사에 관해 연구한 스님으로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청소년·군인등 입장료 인하

삼화사·비로사 문화재사찰로

조계종 관람료조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8일 2차 관람료위원회를 갖고 통해 삼화사(주지 원형)와 영주 비로사(주지 태주)를 문화재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이로써 문화재관람료사찰은 50개로 늘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한 합동정수사찰 주지들이 건의한 청소년 군인 어린이의 문화재관람료를 공인입장료의 비율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1차회의에서 확정관람료를 재결했다.

한편 이번 새로 문화재관람료사찰로 지정된 삼화사는 삼화사상승석탑(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과 삼화사열불(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

112호)가 있으며 비로사에는 석조비로사나불좌상 및 석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96호)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조계종 위탁시설 종사자 호주연수

보육·양로·종교복지 선진시설 견학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복지선진국인 호주에서 종단위탁시설종사자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종단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종단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종단 최초로 책정

'應無所住 而生其心(응무소주 이생기심)-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곧 시간과 장소 현재 처해진 조건에 구애없이 마음을 내면 지금 이 자리가 도량이며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의정부교도소, 언뜻 갇힌 곳이라는 감감함과 범법자들이 모인, 정토와는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금강경의 말씀이 이르고 있지 않은가. 교도소가 법

당이며, 그 사람들이 부처임을.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2일부터 3일동안 12시간에 걸쳐 불교교리와 사찰예절, 달마체조를 과목으로 설치, 불교교리반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도법사는 봉선사 포교국장인 묵암스님.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올 11월 과정을 모두 마치면 수계

식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교도소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위한 강좌가 마련되기는 의정부교도소가 처음이다. 의정부교도소의 불교교리반 개설을 이곳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의 요구와 묵암스님의 도움에 따른 것.

묵암스님은 교도소측에 정진교회사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했고, 교도소측도 재소자 교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이 과정에 독실한 불자인 교무와 여운철계장의 원력도 한몫을 했다.

의정부교도소서 불교강좌

재소자 100여명 요청 봉선사서 주관

교화·포교 한몫...매월 정기화 계획

매월 정기법회를 병행하던 중 지난 6월 재소자들이 불교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법회 때마다 다른 종교행사보다 항상 많은 1백여명 안팎의 재소자들이 참석했다. 스스로 법회를 준비했으며, 봉선사에서 선불한 합장주를 꼭 지니고 생활했다.

묵암스님은 "재소자들의 적극성에 놀랐다.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재소자들이 먼저 했다"며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바쁜 사중의 일정도 뒤로 미루고 의정부교도소 불교교리반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불교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선사에서 후원자로 함께 따라 매월 불교교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운문사 쓰레기수거료 징수 '말뚝'

청도군 조례개정 봉투강매...입장객 부담 가중

청도군이 군립공원인 운문사 계곡과 인근 쌍계리계곡을 찾는 입장객에게 쓰레기수거비용으로 1천원 이상씩 받고 있어 지방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청도군은 지난 3월 '청도군 일반쓰레기 관리조례' 제13조

를 개정, 운문사계곡과 쌍계리계곡 일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7월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동안 이 지역을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군은 이 조례에 따라

201 혹은 501들이 쓰레기봉투를 입장객 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각각 1천원과 2천원을 받고있다.

문제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운문사계곡의 경우 이미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 입장객들에게 3중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외지에서는 스님을 포함한 사찰 참배객에게도 일괄징수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청도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이 지역은 식수원인 운문댐 상류지역이어서 철저한 쓰레기수거가 필요하다"며 "쓰레기장비 조달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 했

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을 방문하려는 한 스님은 "사찰참배객에게도 적지 않은 쓰레기수거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현재 청도군은 공익근무요원 10여명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매일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골프장 환경평가 민간연구소 25일 발표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등은 민간단체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에 의뢰, 1차로 15일부터 3일간 2차로 20일부터 이틀간 골프장에정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조사

정성운 기자

발였다. 이 조사에서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팀과 김용식교수(영남대 조경학)팀은 동식물생태계를, 양운신교수(경남대 환경보호학)팀은 수질영향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25일경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본부에 골프장정지를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는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국제적 수칙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불교법우회(회장 김영숙·양재과)는 지난 14일 인천 송도해변에서 지도법사 정진스님(보문사 주지)의 주관으로 재활원 직원불자, 장애인 법우 및 가족들과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와법회를 겸한 특별수계법회를 병행했다.

구독신청: 737-0691

마음 한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 구멍을 뚫다가 막고 또 뚫다가 막으면 물구멍 하기 어렵습니다. 생수가 터질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막고 나가야 합니다. (하마연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 |
|--|---|
|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불초법회 식순 |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제 1. 우란분제의 연원 2. 우란분제란 3. 우란분제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
| 제3부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1. 나뭇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자욱오간 목련존자 3. 우란분제를 올린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제를 베푸라 하신 뜻은? |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형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월성군 진언과 부적 |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범회안내, 범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시켜드립니다.

부모은중경·목련경·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 |
|--|--|
|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2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3부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리말 부모은중경 우리말 목련경 우리말 우란분경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범회안내, 범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보시 가격/1권당 1,200원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
|--|--|

우리말 지정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 범보시 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정보살신앙영험록
-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범보시자, 범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